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미래관이나 후원자지지의 관계

조강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Relation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 or Sponsor Support of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Cho Kang Hyun

Master of Arts in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longitudinal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chool adjustment and sponsor support or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 differences of these 3 variables between 1st and 2nd survey of children having Didimseed account in institutional care.

Methods: Participants were 25 elementary fourth to sixth grade children who are living on one facility that located in G. metropolitan area at 1st survey and 2nd survey was done at five-year interval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12 to September 2017 and were analyzed using *t*-test, paired *t*-test, ANOVA, post-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knowledge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admission period at 1st survey. At 2nd survey,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grade only.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future time perspective($r=.74$) and negative future time perspective($r=-.54$) at 1st survey, and that was associated with negative future time perspective($r=-.49$) and meeting frequency of sponsor($r=-.43$) at 2nd survey. The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 variables between both surveys. But meeting frequency of sponsor at 2nd survey was lower significantly than that at 1st survey.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prepare the policies that could have their positive future time perspective to increase school adjustment of

접수일 : 2022년 01월 29일, 수정일 : 2022년 02월 23일, 채택일 : 2022년 02월 24일

교신저자 : 조강현(62067,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1로 53)

Tel: 062-444-4345, E-mail: johncho1032@gmail.com

institutionalized children. Also the effective strategies to increase not only Didimseed account support but emotional support through qualified meeting with sponsor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Future time perspective, School adjustment, Sponsor suppor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적응은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교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칙과 질서 등에 적절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노병일과 유호석, 2018; 배정어, 2008). 학령기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생활적응 여부가 학업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 적응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시설보호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아래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적응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퇴소 후 사회적응과 연결되므로 시설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박경진, 2011; 노명숙, 2005).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시선이 강한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 시설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학교적응수준이 낮았고(성미영 등, 2001), 두려움,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영미, 2010; 성미영, 2006).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들은 주로 초등 고학년(오유정과 문혁준, 2014; 신미영, 2012)이나 초·중고등학생(박경진과 박영준, 2014; 유안진 등, 2001), 중고등

학생(김효선, 2020; 최수진, 2018)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관련 요인이나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선행문헌상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관련(영향)요인은 인구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가족요인, 시설환경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되고 있으나(유호석, 2018; 오유정과 문혁준, 2014), 연구들마다 요인의 선택과 조작화가 달라서 그 결과들도 다양하였다.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초·중·고학년의 성별과 거주기간(오유정과 문혁준, 2014; 신미영, 2012)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학년과 성별(김효선, 2020; 최수진, 2018; 이석영, 2016)과 관계가 있거나 없는 일관성없는 결과들을 보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입소 전 부정적 경험, 시설생활로 인한 부적응, 18세 퇴소와 자립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태도가 비관적이면 문제행동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다(유지선과 유계숙, 2007). 미래관은 사람이 미래에 대해 지각하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관점(서영숙, 1988)으로 그간 이루어진 아동의 미래관 관련 연구들은 일반가정의 초등학생(이연갑, 1988; 진정순, 1988), 중학생(유지선과 유계숙, 2007), 초·중고생(신건호와 구분용, 2004)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래기대, 장래전망, 미래지향, 미래관과 같은 유사한 용어로 측정하여 보고하였다. 즉 초등생의 미래관이 비관적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았으며(이연갑, 1988), 부모대화나 격려지지가 많을수록 미래지향이 높았고 미래지향이 학업성적의 영향요인(유지선과 유계숙, 2007)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특히 부모와 분리된 시설보호아동의 미래관이 학교적응에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여겨지나 학교적응과의 관련

성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가족요인으로 초등고학년의 부모생존과 형제동거 유무(신미영, 2011)와 중고등학생의 가족지지(유호석, 2018)가 학교적응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환경과 지역 사회요인으로 많이 측정된 변인은 다양한 지지유형과 지지자원들로서 학교적응과의 연관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 고학년생의 시설 내 구성원 간 관계와 처우의 사회화로 측정된 지역사회교류(유정과 문혁준, 2014), 시설 내 교사나 아동의 지지(유호석, 2018)가 학교적응의 중요한 영향요인들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고등학생이 높게 지각한 봉사자·후원자지지(김효선, 2020; 유호석, 2018)나 정서·도구적 지지로 측정된 시설 내 교사, 또래, 봉사자의 사회적지지(이석영, 2016)는 학교적응과 관련되었으나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므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는 박지원(1985)이 구분한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객관적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 정부가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발달실현과 더 나은 사회출발여건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한 디딤씨앗통장(2007)은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설아동이 정규적으로 후원자로부터 받는 중요한 객관적인 지지로 여겨지므로 이런 후원자 지지가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는지 아니면 후원자와의 만남이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시설에서도 정부 정책사업인 시설보호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계좌에 참여한 후원자의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랄 뿐 이러한 지지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후원자 지지가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에 관련되는지 등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딤씨앗통장 계좌를 가진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문헌상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과 관계가 일관성 없이 나타났던 일반적 특성, 미래관 및 후원자지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간 학교적응 관련 연구가 모두 단면적 연구들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는 1차 조사하고 5년 후에 2차 조사하는 첫 종단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서 측정시기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디딤씨앗통장 후원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속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 1)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측정시기별 대상자의 학교적응에 대한 후원자지지가 미래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학교적응, 후원자지지 및 미래관에 대한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후원자지지와 미래관 수준에 따른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 중 초등학교 고학년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후원자지지 및 미래관을 1차 측정하고, 5년 경과 후 대상자가 중3·고1, 2학년일 때 연구변인들을 2차 측정하여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종단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수집 방법

G광역시 소재 Y 아동보호시설은 시설원장의 일촌 결연사업을 통해서 시설아동 전원이 일촌결연자로부터 정부지원의 디딤씨앗통장 계좌 후원을 매달 받고 있어서 이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아정체감형성이 후기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의 중점 발달과제(Chubb et al., 1997; Conger & Petersen, 1984)임을 고려하여 1차 조사대상은 초등 4-6학년 34명 전원으로 하였으나, 5년 후 2차 조사대상은 1차 조사대상자 중 9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연구대상은 총 25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대상 아동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에게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와 허락을 받은 후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에게 조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자료는 2012년 9월에 수집하였고, 2차 자료는 2017년 9월에 수집하였는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자의 컴퓨터에 암호화된 채 보관되었고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를 폐기함을 원칙으로 명시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교적응

박현선(1998)이 사용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7 문항,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5문항, 학교 규범 준수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22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 환산되었고, 점수범위는 22-88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Ch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 미래관

아동의 미래관의 긍정성 혹은 비판성을 측정하기 위해 Fischer & Leitenberg(1986)가 사용한 도구를 서영숙(1988)이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20) 중 유사한 문항을 제외한 낙관적 문항 12개, 비관적 문항 8개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1점), 아니다(0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낙관적 문항점수가 더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것을 의미하고, 비관적 문항점수가 더 높을수록 더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3) 후원자지지

박지원(1985)이 구분한 객관적 사회적지지로써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 받은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디딤씨앗통장 계좌 후원을 받도록 일촌결연을 맺은 후원자와의 만남 횟수로 측정한 후원자 지지를 의미한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적응변수에 대한 정규성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시행한 결과(K-S Z=.113; .072, $p < .200$; .200)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는 ANOVA나 t-test를 이용하였으며, 후원자지지가 미래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1차-2차 차이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1차조사시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초등 5학년이 48%, 4학년 28%, 6학년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60%, 여자가 40%를 차지하였고, 총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64%, 10년 미만이 36%이었다. 초등 고학년 대상자의 학교적응정도는 학년, 성별, 거주기

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차조사후 5년이 경과된 2차조사시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고1학년 48%, 중3학년 28%, 고2학년 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60%, 여자가 40%이었고, 총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64%, 15년 미만이 36%이었다. 중고등 학생이 된 대상자의 학교적응정도는 학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F=4.09, p=.031$)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후 검정한 결과에서는 고2학년이 중3학년보다 학교적응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변수	구분	n=25				
		1차 / 2차	N(%)	1차 M ± SD	t or F (p)	2차 M ± SD
학년	초등 4 / 중 3	7(28.0)	69.7 ± 7.01	.01 (.995)	64.5 ± 5.35 ^a	4.09 (.031)*
	초등 5 / 고 1	12(48.0)	69.6 ± 11.30		67.7 ± 9.93 ^b	
	초등 6 / 고 2	6(24.0)	70.1 ± 13.02		77.8 ± 9.02 ^c	
성별	남	15(60.0)	67.4 ± 12.02	-1.61 (.123)	69.33 ± 10.11	.03 (.974)
	여	10(40.0)	73.3 ± 5.98		69.20 ± 9.80	
거주기간 (년)	10 > / 15 >	9(36.0)	69.2 ± 7.77	.66 (.839)	65.1 ± 5.37	-1.65 (.112)
	10 ≤ / 15 ≤	16(64.0)	70.1 ± 11.72		71.6 ± 11.02	

*Scheffe' test: c)a(p=.04)

2. 학교적응에 대한 후원자지지가나 미래관의 관련성

1차조사시 대상자의 학교적응은 만남 횟수로 측정된 후원자 지지와 낮은 순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적응은 낙관적 미래관과 높은 순 상관($r=.74$)을, 비관적 미래관과 중등도 역 상관($r=-.54$)을 각각 나타냈는데, 이는 대상자의 낙관적 미래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높고, 비관적 미래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낙관적 미래관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r=.61$)나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r=.58$)영역과 중등도이상의 순 상관을 나타냈고, 학교규범준수 영역과는 높은 순 상관($r=.74$)을 나타내 세 영역 모두 낙관적 미래관과 순상관이 있었다. 2차조사시 학교적응은 후원자 지지($r=-.43$)나 비관적 미래관($r=-.49$)과 중등도 역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후원자 지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비관적 미래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후원자지지($r=-.44$)나 비관적 미래관($r=-.46$)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영역에, 비관적 미래관($r=-.46$)은 학교규범준수 영역에 각각 중등도의 역 상관을 나타냈다. 1차와 2차 조사 대상자 모두 비관적 미래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학교규범준수와 같은 하위영역들의 점수가 낮았다.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1차와 2차 측정치 비교

대상자가 후원자와 연간 만남 횟수인 후원자지지 평균은 1차조사시 13.4회로 2차조사시 3.1회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t=2.61, p=.015$), 낙관적 미래관

평균은 2차조사시 11.7점으로 1차조사시 11.2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 비관적 미래관의 평균은 1차조사시(0.9점)보다 2차조사시(0.6점)에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1차 69.8점(문항별 평점: 3.17/4점), 2차 69.3점(문항별 평점: 3.1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적응의 세 하위 영역의 1차와 2차 측정치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학교적응에 대한 후원자지지가 미래관의 관련성

변 수	측정 시기	후원자지지 $r(p)$	낙관적 $r(p)$	비관적 $r(p)$
학교적응	1차	.12(.566)	.74(.000)*	-.54(.005)*
	2차	-.43(.030)*	.09(.665)	-.49(.011)*
학교생활흥미	1차	.18(.398)	.61(.001)*	-.54(.005)*
	2차	-.44(.029)*	.08(.676)	-.46(.020)*
학업성취태도	1차	.23(.272)	.58(.002)*	-.31(.120)
	2차	-.34(.087)	.13(.529)	-.37(.062)
학교규범준수	1차	-.04(.858)	.74(.001)*	-.56(.003)*
	2차	-.36(.071)	.02(.902)	-.46(.018)*

* $p < .05$

〈표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1차와 2차 측정치비교

변 수	1차	2차	$t(p)$
	M ± SD	M ± SD	
후원자지지	13.4 ± 18.75	3.1 ± 6.22	2.61(.015)
낙관적 미래관	11.2 ± 1.46	11.7 ± 0.68	-1.77(.090)
비관적 미래관	0.9 ± 1.51	0.6 ± 1.11	.90(.376)
학교적응	69.8 ± 10.30	69.3 ± 9.78	.19(.849)
학교생활흥미	22.8 ± 3.86	22.9 ± 2.18	-.04(.966)
학업성취태도	13.4 ± 3.59	13.2 ± 3.80	.23(.818)
학교규범준수	33.7 ± .428	33.3 ± 4.20	.36(.723)

4. 후원자지지와 미래관 수준에 따른 1차와 2차 학교적응비교

대상자의 1차 후원자지지와 미래관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1차와 2차 측정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후원자 지지가 없는 군은 1차보다 2차 학교적응이 약간 증가하였고, 후원자지지가 있는 군은 1차보다 2차 학

교적응이 감소되었으나 두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낙관적 미래관이 12점미만인군은 1차보다 2차 학교적응이 증가된 반면 12점이상인군은 1차보다 2차 학교적응이 감소되었으나 두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관적 미래관이 8점미만군은 1차보다 2차 학교적응이 감소되었고, 8점이상군은 1차보다 2차 학교적응이 증가하였으나 두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 후원자지지와 미래관 정도에 따른 1차와 2차 학교적응비교

변 수	구분	N(%)	1차		2차		paired t(p)
			M ± SD	M ± SD	M ± SD	M ± SD	
후원자지지	0	14(56.0)	67.6 ± 12.04	69.5 ± 8.65	-0.49(.630)		
	1 ≤	11(44.0)	72.6 ± 7.18	68.9 ± 11.49	1.02(.329)		
낙관적 미래관	12 >	10(40.0)	64.6 ± 11.90	69.3 ± 10.61	-0.91(.385)		
	12 ≤	15(60.0)	73.3 ± 7.67	69.2 ± 9.58	1.48(.159)		
비관적 미래관	8 >	12(48.0)	73.2 ± 7.20	70.1 ± 10.20	-0.50(.626)		
	8 ≤	13(52.0)	66.1 ± 12.09	68.4 ± 9.68	-0.59(.565)		

IV. 논의

본 연구는 정부와 후원자의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는 시설아동의 후원자지지와 미래관의 변화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5년 간격으로 1차와 2차 종단적인 측정을 하였다. 1차 조사대상자의 100%가 후원자의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 후원자와 만남인 후원자 지지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44%로 나타나 후원자의 과반수 이상이 계좌이체로 물질적 지원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2차 조사시에도 대상자의 96%에게 통장지원이 지속되었으나 후원자지지는 28%로 감소되었으므로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받도록 일촌결연 자를 연결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들과 지속적이고 질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1차 조사대상인 초등학교학년의 학년, 성별, 거주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시설아동대상인 초등학교학년의 학년, 성별, 입소기간(신미영, 2012)이나 학년(오유정과 문혁준, 2014)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들과 일치하였으나, 성별과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오유정과 문혁준, 2014)와는 차이가 있었다. 2차 조사대상인 중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김효선, 2020; 이석영, 2016)와 일치하였다. 학년 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을 한 결과 고2학년이 중3

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낮은 학교적응을 나타낸 결과(유안진 등, 2001)에 비추어 볼 때 본 고등학생이 정부와 후원자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자체가 곧 퇴소·자립해야 할 이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되었던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의 성별과 거주기간에 따른 학교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시설거주 중고등학생의 성별(김효선, 2020; 이석영, 2016)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성별과 거주기간(유안진 등, 2001)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일치된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성별과 거주기간(최수진, 2018; 유호석, 2018), 성별(이석영, 2016) 및 거주기간(김효선, 2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들과는 상반되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시설아동의 거주기간이 학교적응의 유의한 관련 요인(최수진, 2018; 유호석, 2018)이나 영향요인(김효선, 2020; 오유정과 문혁준, 2014)으로 나타났으므로 특히 시설거주기간이 짧은 초등고학년과 중고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초등고학년 때나 중고등학생일 때 모두 비판적 미래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점수가 그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학교규범준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지향이 학업성적에 정적영향을 미쳤던 결과(유지선과 유계숙, 2007)와 일맥상통하므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 시설아동들이 긍정적 태도로 변화되도록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대상자가 초등고학년일 때는 낙관적 미래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나 세 하위영역 점수가 모두 높았던 반면에 중고등학생일 때는 낙관적 미래관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확인 그 이유를 밝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생 때 시설아동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교적응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다.

대상자가 초등 고학년일 때 후원자의 만남 횟수와 학교적응의 관계가 아주 낮게 나타났던 결과는 후원자들이 아동들을 만날 때 통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식사나 물질제공에 그칠 뿐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 관련 대화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잘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일 때 후원자와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학교적응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정도가 낮았던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자/후원자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점수가 높았던 결과(김효선, 2020; 유호석, 2018)와는 상반되었는데 이는 지지측정 도구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다른 연구들의 후원자지지는 지각된 지지로 측정되었고, 다른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중고등학생 중 72%가 후원자지지가 없었으므로 학교적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후원자와 질적인 만남이 아닌 겉치레식의 만남은 그들에게 시간낭비로 여겨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결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결과의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후원자지지로 측정된 후원자와 연간 만남 횟수는 1차조사시 평균 13.4회이었는데, 2차조사시는 3.1회로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시설 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설아동과 후원자간 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학교적응이나 하위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한 점수가 1차와 2차간에 비슷한 점수를 보였는데 2차조사시 후원자와의 만남 유무와 횟수가 1차 때보다 크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점수가 유지되었던 이유는 대상자들에게 5년간 지속된 디딤씨앗통장 지원자체가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대상자가 초등고학년일 때 학교적응이 평균 69.8점(문항평균: 3.17)으로서 동일한 대상과 도구로 측정된 초등고학년의 67.6점(신미영, 2012)이나 초

등고학년의 평점 2.95(오유정과 문혁준, 2014)보다 더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냈으며, 또한 본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일 때 학생적응이 평균 69.3점(문항평점:3.15)으로 나타나 초·중고등학생의 총 4점 중 평점 2.42점(유안진 등, 2001)이나 중고등학생의 총 5점 중 평점 2.87점-3.45점(김효선, 2020; 유호석, 2018; 최수진, 2018)이었던 결과들보다 더 높은 학교적응정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본 대상자가 전부 디딤씨앗통장으로 물질적 지원을 받아오면서 44%가 실제로 일촌결연 후원자와 만나고 있었던 효과로 사료되므로 아동시설차원에서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1차와 2차 미래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상자가 초·중고학년 때나 중고등학생일 때 모두 비관적 미래관의 평균이 총 8점 중 1점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대상자의 미래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편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청소년이 더 좋은 학업성적을 나타낸다고 볼 때 시설아동의 낙관적 미래관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1차 후원자지지와 미래관 정도에 따른 1차와 2차 학교적응의 종단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후원자지지가 없었던 초·중고학년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적응이 증가된 반면에 후원자지지가 있었던 군은 오히려 학교적응이 감소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2차 조사 때 28%만이 후원자 지지가 있는 것으로 감소되었고, 초·중고학년과 달리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후원자와 통상의 형식적 만남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목적상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위한 일촌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 아동시설대상이라 표본수가 제한적이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과 무관한 시설아동들까지 포함시켜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후원자지지를 객관적인 지지로만 측정했는데 시설아동의 후원자에 대한 지각된 지지를 함께 측정해서 학교적응과 관련성을 재확인해야 하며,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된 시설아동의 미래관과 그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받는 시설보호아동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후원자지지가 미래관의 관계 그리고 초·중고학년 때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미래관, 후원자지지가 및 학교적응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조사와 5년 후 2차로 종단적 조사를 처음 수행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초·중고학년은 낙관적 미래관이 높을수록, 비관적 미래관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은 비관적 미래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았으므로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후원자와의 만남 횟수인 후원자지지는 초·중고학년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없었으며, 중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후원자지지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던 결과는 후원자지지가 있었던 대상자가 1차 44%, 2차 18%로 낮아 후원자지지와 학교적응의 관련성 파악은 무리가 있으므로 시설차원에서 디딤씨앗통장의 물질적 지지와 아울러 질적인 후원자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대상자의 1차와 2차 학교적응 정도는 모두 동일한 대상과 도구로 측정한 타 연구들의 학교적응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효과로 여겨지므로 이 정책의 홍보와 후원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효선. (2020).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 노명숙. (2005).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춘천: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3. 노병일, 유호석. (2018). 다양한 수준에서의 사회적지지가 시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8(3), 115-125.
4. 박경진. (2011).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5. 박경진, 박영준. (2014). 시설입소 피학대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205-238. Retrived from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113810>
6.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7. 배정미. (2009). 중학생의 학교적응관련요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8(3), 454-464.
8. 서영숙. (1988). 초등학교 아동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 29, 73-91.
9.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10.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시설 아동과 일반 아동의 초기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155, 53-64.
11. 신건호, 구본용.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부모의 자녀성적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자아개념 및 미래기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상담연구. 32(2), 30-41.
12. 신미영. (2011).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과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3. 신미영, 강현아. (2012).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에 따른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50(4), 73-87. Retrived from <http://dx.doi.org/10.6115/khea.2012.50.4.073>
14. 오유정, 문혁준. (2014). 시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시설의 심리적 양육환경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69-87.
15.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 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16. 유지선, 유계숙. (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업성적, 성 허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16. Retrived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96798>
17. 유호석. (2018). 시설보호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 대학원.
18. 이석영. (2016). 양육시설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 이연갑. (1988) 아동의 미래관과 자아개념, 학업 성적 및 사회 측정적 지위와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 진정순. (1988). 아동의 미래관과 어머니의 자녀 미래관과의 관련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1. 최수진. (2018), 시설 아동의 시설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남대학교 대학원.

22. 홍영미. (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 청소년학회, 17(12), 187-209. Retrived from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61655>
23. 디딤씨앗통장 (2007). Retrived from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24. Chubb NH. Fetman CL, Ross JL. (1997). Adolescent 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s*, 23(125), 113-129.
25. Conger JJ. Petersen AC. (1984). Adolescence and youth. NY: Harper & Row.
26. Fischer M. Leitenberg H. (1986). Optimism and pessimism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241-248.